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발행인 : 이화래, 편집인 : 최진웅
 편집 : 대외협력·홍보위원회
 (김광수·김성배·김학진·류영렬·배익영·
 이창규·임상준·Hong Sok(Brian) Kim)

새로운 시작,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이들 새내기 입학식과 학위수여식



■ 서울대학교는 2013학년도 입학식을 3월 4일 종합체육관에서 가졌다. 총 9,889명(학부 3,321명, 대학원 3,568명)의 신입생을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하였고, 이 중 우리 대학 신입생은 총 487명(학부 332명, 대학원 155명)이었다. 오연천 총장은 입학식사에서 “대학은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내고 이에 대한 해답을 열정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학문적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는 곳”이라며 “남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길을 모색하고 개척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 입학식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농공학 71)를 축하 연사로 초청하였다.

또한 2월 26일에는 제67회 전기 학위 수여식이 종합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총 5,121명의 학생이 학위를 받는 영예를 누렸으며, 우리 대학은 학사 216명, 석사 106명, 박사 35명 등 총 35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졸업식에 참석한 임지수(석사)씨는 “졸업식에 오니 실감난다”며 “사회에 나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이들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한국 농업의 미래를 선도하며 농생대의 위상을 빛낼 것이다.

이정재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장으로 선출



■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3월 18일~22일 벌인 온라인 투표에서 이정재 교수(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를 임기 2년(2013. 03. 27. ~ 2015. 03. 26.)의 제31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1960년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출범한 후 전체 교수가 투표에 참여하여 교수협의회장을 선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교수는 “처음으로 직선제를 통해 교수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만큼 그 어깨가 무겁다.”며 “서울대가 학문의 전당으로서 위상을 갖추고 사랑받는 대학으로 발돋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 교수는 임기 동안 교수청원 및 소환제와 교수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제시하였다. 이 교수는 “청원과 소환 제도를 통해 교수들의 총의를 전달함으로써 행정기구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한편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각 분야에서 교수들의 연구와 경쟁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주요내용〉

1~3면_농생대 헤드라인
 9면_언론에 비친 농생대

4~5면_농생대 인사이드
 10~11면_기금출연

6~8면_Interview
 12면_농생대 사람들

Headline 농생대 헤드라인

나승일 교수, 교육부차관으로 임명



■ 나승일 교수(농산업교육과)가 3월 13일 교육부 차관으로 임명되었다. 나 차관은 서울대 농업교육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조교수, 대구교대 교수 등을 역임한 뒤 1999년부터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다. 나 차관은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대학에서의 효과적인 교수법 가이드, ▲예비교사를 위한 교육실습 가이드 등 진로교육 분야 저서를 두루 집필하는 등 직업교육 전문가로 진로 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한 2009년도에는 기술인재 육성 및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차관 인사와 관련하여 청와대는 “소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적합한 분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동필, 여인홍, 정황근 동문 18대 정부 장·차관, 비서관으로 임명



이동필 (농경제석사79)



여인홍 (농학76)



정황근 (농학79)

■ 3월 11~13일 우리대학 출신 이동필(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여인홍(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정황근(농축산식품비서관)동문이 새로운 정부의 핵심 관료로 인선되었다. 이동필 장관은 서울대 농경제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30년 이상 농업·농촌 대한 발전 방향을 연구해왔다. 국무총리실 농업정책심의회 실무위원을 거쳐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농림식품 분야 중기재정작업반장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다. 여인홍 차관은 서울대 농학과를 졸업한 후 기술고시에 합격, 국립식물검역소 근무를 시작으로 30년 가까이 농정 외길을 걸어온 인물이다.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국립식물검역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식품산업정책실장으로 일해왔다. 농산물 유통 부문에 정통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유통구조 개혁에 적임자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정황근 비서관은 서울대 농학과를 졸업한 뒤 기술고시에 합격, 농림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농림부 농촌인력과장,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혁신인사기획관, 대변인, 농업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무하 교수, 에티오피아 아마다 大 농과대학장 부임



■ 2월에 퇴직한 이무하 교수(동물생명공학)가 에티오피아의 국립 농과대학 학장을 맡아 한국의 농축산기술을 아프리카 현지에 전수하게 되었다. 아마다 대학(Adama Science & Technology University)은 한국의 카이스트와 유사한 국립 과학기술대학으로, 이 중 농과대학은 학부생 800여 명과 대학원생 15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1975년 서울대 축산학과를 졸업한 이 교수는 미국 위스콘신메디슨대학에서 식품학 박사학위를 받고 1988년 서울대 동물자원학과 교수로 부임되었다. 이후 서울대 농생대 학장과 한국동물자원과학회장, 한국식품연구원장으로 활동하며 농생대의 발전을 위해 크게 공헌해왔다. 이 교수는 “한국의 농업 발전 경험을 나눠 에티오피아 국가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입학식서 축하한 이수만 SM대표



■ 우리 대학 출신의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농공학71)가 올해 서울대학교 입학식 축하 연사로 초청되었다. 이 대표는 신입생들에게 “K팝 신드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으로 말머리를 열었다. 그는 “문화를 먼저 만들면 경제가 따라오고, 강력한 국가브랜드를 탄생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강력한 국가브랜드를 형성할 수 있으니 이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 여러분이 답을 찾아봐 달라.”고 전했다. 그는 ‘자부심’과 ‘도전’, ‘자기책임’, ‘사회적 책임’을 중심으로 서울대 신입생들에게 도전정신과 희망을 제시하였으며, 미래의 리더인 신입생들에게 보다 더 큰 그림과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꿈을 키워나갈 것을 당부했다. 서울대 입학식 축하 연사는 신입생에게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유명 인사들이 맡아왔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수만 대표는 늘 새롭게 도전하는 삶을 살아왔다. 신입생에게 도전 정신을 불어넣기 위해 연사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새내기들의 대학 첫 활동, 이곳은 새내기 새로 배움터!



우리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활 안내 및 학부모 간담회가 지난 2월 12일 오후 2시에 201동 101호에서 열렸다. 이학래 학장은 이날 신입생들에게 농생대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강조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길 바란다.”로 당부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농생대 총동창회장과 CALSP회장의 특별장학금 수여 및 축사가 있었다. 이후 상록의 아들 배우기와 농생대 홍보영상물 상영, 교과과정 소개, 장학금 안내, 질의응답 등을 통해 대학생활 및 농생대에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우리 대학은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설악파인리조트에서 새내기 새로 배움터(새터) 행사를 진행하였다. 총 730명의 신입생과 재학생이 참석하여 대학생활을 함께할 교수와 선배들을 미리 만나 다양한 대학 정보를 나누고 선후배 간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새터 첫날, 이학래 학장을 비롯한 보직 교수가 참석하여 새내기들을 환영하며 “앞으로의 대학생활의 멋진 꿈을 펼쳐가길 바란다.”며 새내기들을 격려했다.

농생대 13학번 ‘넌 누구 니?’

넌 어디서 왔니?

2013년 새내기 배움터(새터)에 참가했던 학생 중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남자 115(46%)명, 여자 135(54%)명의 비율로 설문에 응답하였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기본적인 호구조사부터 시작해보자. 응답자들의 나이를 살펴보면 만 18(57%)세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 19세(31%), 20(8%)세, 17세(2%) 및 21세 이상(1%) 순으로 많았다. 만 18세 이하를 일반적인 입학 연령으로 생각했을 때 재수 및 삼수생 등이 최대 40%정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된 신입생 평균 나이가 만 18.5세인 것을 볼 때 우리 대학을 한 번에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코레일 청소년할인이 적용되는 나이! 청소년끼리 나이에 얽매지 않기를 바란다. 출신학교의 경우 일반 인문계(84%), 특수목적고(10%), 자립형사립고(5%), 실업계(1%) 순으로 많았다. 이는 내신을 위주로 뽑은 수시전형에서 일반 인문계 학생이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실제로 수시생과 정시생을 비교하면 72:28의 비율로 수시생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과학고, 외고, 자립형사립고의 입학이 서울대 입학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출신지역으로는 경기(27.7%), 서울(26.1%) 지역이 가장 많았고, 경상도(25.3%)가 그 뒤를 이었다. 충청도(12%), 전라도(8%), 기타(제주도, 강원도, 외국 등) 순으로 많았다. 캠퍼스에서 우리가 듣는 말의 반은 서울말, 반은 사투리니. 당황하지 마 시라예~

4당5락? 교과서만 봤어요?, 이젠 모두 옛말!

예전에는 사당오락(四當五落)이라는 말이 있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5시간자면 떨어지고, 4시간 자면 붙는 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옛말이 되었다. 수면시간은 6시간(40%), 5시간(30%), 7시간(17%), 8시간(8%), 4시간(5%) 순으로 많았다. 평균 수면시간은 6시간으로 사당오락이 아닌 사락육당임을 보여줬다. 공공연한 거짓말로 꼽히는 ‘교과서만 봤어요’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경험에 대하여 전혀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전체 9%에 불과했다. 학원(40%), 인터넷강의(37%), 과외(14%) 순으로 사교육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교과서만 봤다는 말은 소수의 학생이거나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교육이 서울대학교를 들어오는 비결은 아니다.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데 가장 도움이 된 것을 뽑는 질문에 86%의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꼽았다. 정규교육과 사교육의 비율은 불과 8%와 6%로 자기주도적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였고, 또한 정규교육이 사교육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알고 보니 허당?

서울대학교 학생은 꼼꼼하고, 매사에 철저할 것만 같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설문조사결과 신입생은 평균 1.8주만큼의 계획을 세우며, 특별히 공부계획을 세우지 않는 비율도 46%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1주일(32%), 한 달(10%), 2~3주(7%), 3개월 이상(5%) 순으로 공부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결국 특별한 계획이 없거나 1주일 단위로 공부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공부의 왕도로 여겨지는 철저한 계획은 보통 세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만 할 것 같은 학생들도 대부분 실제 취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음악, 운동, 게임, 독서, 영화관람 순으로 많았고 그림, 잡자기와 같은 답변에서 수다, 연애, 애완동물 기르기 등과 같이 특이한 항목도 있었다. 이성친구 교제여부의 경우에도 39%가 이성친구가 있다고 답해 서울대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공부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미친 인물로 부모님, 선생님, 친구, 가족 순으로 많았다. 서울대학교 농대를 선택한 이유에서는 ‘적성을 고려하여’가 61%로 가장 많았고, 주변 권유(16%), 평판(14%), 성적에 맞춰서(6%)가 다음 순으로 많았다. 절반 이상이 적성을 고려하여 농대를 선택한 것을 보면 과거 농대하면 가지고 있던 농대 컴플렉스는 상대적으로 많이 사라진 것으로 생각된다.

교수 정년 퇴임식



임승빈(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우리대학은 3월 8일 대회의실에서 임승빈 교수(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와 하종규 교수(농생명공학부)의 정년교수 퇴임식을 가졌다.

임승빈 교수는 조경학과 설립 초기 1977년에 본교 농생대 교수로 부임하여 조경전문가 양성 및 다수의 조경학 전문서적을 발간하여 우리나라 조경학의 기틀을 세우는데 기여한바 있다. 또한 농생대 각종 위원회 위원, 기획실장, 농생대 교수협의회 회장, 농학도서관장,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부회장, 특별재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대학 발전에 큰 공로를 세웠다. 더불어 다수의 환경계획 관련 학회장을 역임하며 환경계획 및 설계분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이외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설계 공모, 용산공원 아이디어 공모 등의 굵직한 설계공모의 심사위원장 뿐만 아니라 광교신도시 호수공원 총괄 계획가(MP) 등 수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그는 또한 제3회 농생대 학술상, 자연보호중앙협의회에서 대통령표창, 2007년 자랑스러운 조경인상, 한국조경학회 우수논문상, 제22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등을 수상하였다.



하종규(농생명공학부)

하종규 교수는 1984년 본교 농생대 교수로 부임한 이후 29년 동안 농생대의 각종 위원회 위원, 학생부학장, 농학도서관장, 실험목장장, BK사업단장 등 다양한 보직을 역임하여 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세계축산학회 조직위원장, 아세아태평양축산학회 사무총장, 세계축산학회 부회장등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의 축산학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섰으며, 1988년부터 현재까지 아세아태평양축산학회지의 편집위원, 사무국장, 재무위원, 부편집인, 편집위원장으로 학회지의 질적 향상과 현대화를 통해 국내 관련 학문의 국제화에도 큰 공을 세웠다. 하 교수는 반추동물영양학 분야에 있어 탁월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한국영양사료학회 학술상, 한국과학기술우수논문상, 제18회 상록농업생명과학연구대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임된 바 있다. 그는 또한 중국, 일본, 동남아 여러 나라의 축산 교육과 산업발전을 위해 개인적으로 많은 헌신을 하였으며 이러한 그의 공로가 인정되어 일본축산학회 종신회원으로 추대되었을 뿐 아니라 태국 찬드라카셈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 받기도 하였다.

신임교수를 소개합니다.



백명기 교수(농생명공학부)

백명기 교수, 농생명공학부 부임

백명기 교수가 2013년 3월 1일자로 농생명공학부 동물생명공학 교수로 부임했다. 백명기 교수는 본교에서 학부와 석사과정을 이수한 뒤 미국 North Dakota State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미국 NIH 박사후연구원을 거쳐 1992년부터 전남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였다. 주 전공은 반추동물영양생리학이며 반추미생물생태학 등의 과목을 담당한다.

“1979년 서울대학교 축산학과에 입학하여 관악캠퍼스에 첫 발을 디딘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3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2013년 1학기부터 모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무척 기쁘고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래된 식구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동물생명공학 전공 교수님과 농생대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에게 주어진 교육, 연구와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한 봉사에 대한 소명 의식이 초심처럼 서울대학교에 봉직하는 동안 계속되기를 다짐합니다.”



이은진 교수(식물생산과학부)

이은진 교수, 식물생산과학부 부임

이은진 교수가 2013년 3월 1일자로 식물생산과학부 원예생명공학 조교수로 부임했다. 이은진 교수는 본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미국 Texas A&M University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주 전공은 원예산물 수확 후 생리 및 관리학이며 원예작물화학조절론 등의 과목을 담당한다.

“저는 돌이켜 보면 많은 주변 분들의 도움과 격려로 인해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모든 것들을 이젠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한 지금 이 순간 굳은 각오와 설레임 그리고 긴장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서울대 농생대와 함께하면서 무엇이든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초심! 초심! 초심! 세 번씩 외치며 하루를 시작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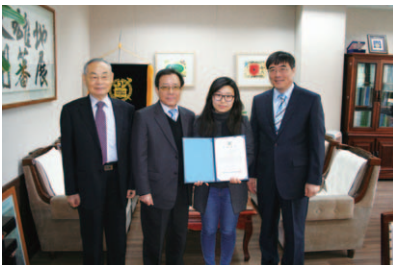
기념식수 행사

정윤희 동창회장의 업적을 기리고자 기념식수 행사가 4월 11일 농생대 상록관 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윤희 동창회장과 이학래 학장을 비롯하여 집행부 교수, 동창회 임직원 등이 참석하였다. 정 회장은 1962년 본교 입학과를 졸업한 후, 현재 일성화학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정 회장은 그동안 우리 대학에 서클버스, 장학금 기부 등을 통하여 재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제8대 서울대 농생대 동창회장을 역임하면서 동창회와 대학발전에 큰 업적을 이루었다. 정윤희 회장은 기념식수 표석에 '모교여 영원히 발전하라'라는 친필 문구를 남겨 농생대의 발전을 염원하였다.



제10기 CALS Global Challenger

CALS Global Challenger는 해외 선진 농산업시설 탐방을 통해 학생들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에는 7개 팀이 선발되어 해외 농산업 현장을 탐방하고 돌아왔다. 올해 선발된 ▲Agristruction, 21, ▲다도(茶道)의 꿈, ▲청정 산양삼을 소개합니다, ▲외식의 중심에서 농업을 외치다, ▲CALS in CALS, ▲Do COOP!, ▲젊은이 팀은 겨울방학동안 미국과 유럽 등 해외지역을 탐방하며 국내와 해외 선진 농업을 비교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CALS Global Challenger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10기를 거치며 40개 팀, 총 100명의 학생들에게 세계 농산업 현장 체험을 지원하고 있다.



학문후속세대 장학금 수여식

지난 해 한인교 명예교수(현 재단법인 목문화재단 이사장)가 출연한 학문후속세대 장학금 수여식이 3월 6일 학장실에서 개최되었다. 한인교 이사장, 이학래 학장, 하종규 명예교수(농생명공학부)가 참석한 이날 수여식에서 식물생산과학부 원예생명공학 전공 최우리 학생에게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최우리 학생은 학부과정을 최우등급으로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 진학하여 농학 분야에 더욱 더 정진해 나갈 계획이다. 학문후속세대 장학금은 농업생명과학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졸업 후 동일분야에 진출하는 후배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으로 매학기 한 명씩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마케팅 전략의 대가 Robert Peterson 텍사스 주립대 연구 부총장 강연

농경제사회학부 문정훈 교수는 2월 7일 SPC연구동에서 미국 텍사스 주립대 연구 부총장 'Robert Peterson' 교수를 초청하여 한국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미래 관계 마케팅'에 관한 주제로 강연을 개최하였다. Peterson 교수는 "사랑받는 기업이 되는 것이 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며 "사랑받는 기업들은 높은 품질, 우수한 서비스, 활발한 사회 환원 등의 특징을 갖는다"고 말했다. 한편 Peterson 교수는 마케팅 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IMA(국제마케팅협회) 최고 교수상(2006)'을 수상했으며, 전미 마케팅 협회(AMA) 부회장, 마케팅 과학 아카데미(AMS) 회장 역임 등 마케팅 전략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으로 알려져 있다.



농학도서관 다독자 시상

지난 2월 6일 농학도서관(관장 농생명공학부 이준호 교수)에서는 2012년 농학도서관 도서를 가장 많이 이용한 학생 3명을 시상하는 행사를 가졌다. 학부생, 대학원생, 외국인학생 중 지난 1년간 최다 대출자 각 1명씩을 선발, 안소현(식품동물생명공학부, 67책), 심지연(대학원, 농산업교육과, 73책), 미오 탄(농생명공학부, 37책)에게 해당 상이 수여되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학습 및 연구 활동의 기본이 되는 도서 및 도서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한편 2012년 농학도서관 도서 중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도서는 맨큐의 경제학(148회), 생명과학(98회), 식물생리학(97회)이며 외국서 중에서는 'Molecular Biology of the Cell' 이 33회 대출되어 가장 많이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NICEM, 청소년을 위한 생명과학 체험학습 개최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원장 농경제사회학부 김관수 교수)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겨울방학 생명과학 체험학습을 1~2월에 걸쳐 두 달간 개최하였다. 2일의 일정으로 이루어진 해당 프로그램은 첫 날에는 농생대 교수님의 특강 수업과 실험실 투어, 둘째 날은 DNA추출과 세포분열관찰, 미생물배양 및 관찰 등의 실습 수업으로 이루어졌다. 체험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 이번 겨울방학에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전국 307개의 고등학생 835명이 참가하여 생명과학 체험학습을 수료했다.

시설은 새롭게 연구는 더 폭넓게, 새 단장한 태화산 학술림

서울대학교 3개의 학술림 중에서 관악캠퍼스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 활용도가 높고, 최근 리모델링을 한 태화산 학술림을 탐방해보았다.

학술림이란?

학술림이란 일반적으로 교육을 목적으로 조성된 숲을 의미한다.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본부 학술림과 남부 학술림, 칠보산 학술림, 태화산 학술림의 3개의 지방 학술림으로 구성된다. 본부 학술림은 관악 캠퍼스의 전반적인 수목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태화산 학술림은 한국 중부지역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의 산림경영을 맡고 있다. 칠보산 학술림은 양묘장이 위치한 곳으로, 조경수 양묘기술과 도시환경 녹화수종 개발에 힘쓰고 있다. 남부 학술림은 지리산 및 백운산에 걸쳐있는 숲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로 산림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 중에서 관악캠퍼스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 활용도가 높고, 최근 리모델링을 한 태화산 학술림을 탐방해보았다.

태화산 학술림 탐방

산림과학 및 생태학에 대한 시험연구, 학생실습 및 세미나 장소 제공 목적으로 1998년 11월에 신축되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거쳐 간 우리 대학의 대표적인 학술림 중 하나이다. 농생대를 비롯하여 환경대학원, 자연과학대 등 다양한 학과 및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곳에서 연구해왔다. 특히 최근 2012년 5월 25일에는 대기오염관측타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MOU 체결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기후변화연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생태계간 물질 교환량 연구와 관련된 자료를 공동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태화산 학술림을 종합적인 대기환경 및 산림생태계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의 핵심 연구지로 육성할 전망이다이라고 한다.

이 뿐만 아니라, 현재 태화산은 중부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고, 잣나무와 같은 인공림이 잘 가꾸어져 있어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의 연구에 관한 많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보고로 여겨져 왔다. 2012년에만 해도 536명의 학부생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생태 및 산림에 관한 실습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태화산 학술림은 수도권에서 평소 숲에 관심이 많지만 접할 기

회가 드문 학생들을 위해 ‘청소년 생명의 숲교실’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외부단체와 협력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숲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노력의 결과로 2010년 265명, 2011년 240명의 학생들이 숲에 관해 배우고,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많은 이들이 거쳐 간 탓에, 건물 뿐 아니라 내부시설까지도 많이 노후화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용객들의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으며, 심지어는 일부 시설의 경우 비위생적인 것 같다는 지적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2012년 가을에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대대적인 태화산 학술림 리모델링을 시행하였다. 공사 후, 잠자리뿐 아니라 강의실에도 천정형 에어컨이 설치되었으며, 둔탁해 보이던 철로 된 방문은 나무문으로 바뀌었다. 간혹 불편하게 여겨지던 침구류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여 보다 산뜻하고 쾌적한 학술림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태화산 학술림 김대우 소장은 “새롭게 거듭난 학술림에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서울대의 모든 구성원들의 세미나 및 워크숍 뿐만 아니라 연구를 위한 목적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한다.”며 더불어 “많은 이들이 이곳을 이용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탐방 후 느낀 점

마치면서 태화산 학술림뿐만 아니라 도시환경녹화연구센터로 활용되고 있는 수원 칠보산학술림과 학술림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자연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은 남부학술림도 탐방해보았으면 좋을 것 이란 생각이 들었다. 산림청에 의하면 2010년 기준 산림의 공익기능 총 평가액은 109조 7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막대한 산림의 가치를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태화산 학술림을 비롯한 서울대학교 학 술림들의 존재는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농생대 학생기자단 제1기 이종수



전남생명과학고 교장 이인휘(농산업교육과·77) 동문을 만나다.

‘교육’은 나의 꿈, 그리고 천성

농산업교육과 이인휘 동문은 1985년 광양 농고에서 교편을 시작하여 신안 안좌중을 거쳐 전남 교육청 과학산업교육과 장학사를 역임하는 등 27년을 농업계 교육에 종사하고 있다. 지금은 전남생명과학고(마이스터고)에서 교장으로 교직생활을 하고 있다.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는 1937년 개교한 강진농업고등학교의 새로운 이름이다. 현재는 마이스터고(전문적인 기술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지정되어 여러 분야의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분야는 아직 공업 분야에 비해 취업이 활발하지 않다고 한다. 힘든 육체노동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기피하기도 하며, 일거리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젊은 사람들이 종사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농업 분야 발전에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이인휘동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농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며, 밝은 미래와 희망이 있는 산업이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게 선생님이란 직업은 매우 존경받는 직업이었다. 시골에서 롤 모델이라 할 사람은 선생님이 유일했고, 가정방문을 하면 집에서 가장 귀한 달걀 등을 내놓았기 때문에 동경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성격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웬만한 일은 내 탓으로 돌리는 성격 탓에 교육자의 길은 천성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는 대학생활에서도 물어났다. 당시 대학생활은 3가지 서클활동을 해야 했다고 한다. 이념 서클, 먹고 마시고 노는 서클, 운동 서클인데 이인휘 동문도 이 중 2개는 다녔다고 한다. ‘한얼’이라는 이념서클을 다녔지만 성격 탓에 그만두고, ‘두레(풍물패)’의 경우 어릴적 경험과 학생들에게 가르쳐보겠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했다고 한다. 그 후 ROTC를 거쳐 당시 삼성, 현대보다 더 높은 급여를 주는 보험회사에 잠시 몸담은 적이 있지만 결국 교편을 잡게 되었다.

농업의 미래, 우리의 역할

이인휘 동문은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종사자가 젊어져야 한다고 한다.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 관행농업에 의지하는 반면, 젊은 층이 많은 화훼분야의 경우 수출을 비롯하여 전망이 밝은 편이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젊은 층이 농촌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후계인력양상을 위한 고졸, 대졸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농업관련 학교가 학생 모집이 잘 안되더라도 학과를 유지하고 후계자를 꾸준히 양성하는 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도시원예나 애완동물 관련 교육의 경우 당장 실용성이 크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내에는 농업고등학교가 하나도 없고, 서울시교육청에도 관련 분야 전문가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여기서 이인휘 동문은 농대 그리고 농대를 다니고 있는, 졸업한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모든 사람이 농업을 위해서 뛰어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농대를 졸업하여 각계로 진출하는 동문들이 농업을 관심 있고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룹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변화시킨다면 농업도 크게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

후배들에게 한마디

농업이 어려운 분야지만 후배들을 필요로 하고 밝은 전망을 가진 세부 분야는 매우 많다. 예를 들어, 한식 세계화와 관련하여서는 식품분야에서 FAO, FiBL, IFOAM과 같은 국제기구까지 그 폭은 매우 넓다. 대부분의 사람은 삶의 후반부, 50세가 넘어야지만 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모으기 시작한다.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눈앞의 이익을 보기보다는 크고 긴 안목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아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 다시 삶을 살더라도 농업교육에 종사할 것이고, 그 때는 세계무대에도 나가보고 싶다는 이인휘 동문에게서 농업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만남이었다.

농생대 학생기자단 제1기 유화섭



전남생명과학고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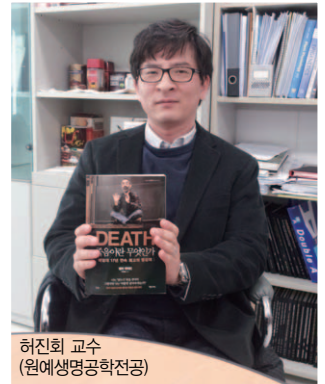


친환경 농업경영과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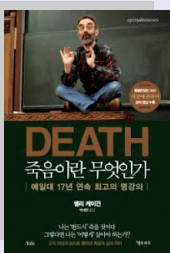
CALS Newsletter의 교수 릴레이 도서 추천

그 네 번째 주인공은 원예생명공학전공에서 식물발달유전학을 연구하고 있는 허진희 교수!

허진희 교수는 본교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UC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2009년도부터는 우리 대학 원예생명공학전공 교수로 임용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학창 시절에는 농생대 밴드 동아리인 샌드페블즈에서 활동하며 대학가요제에서 입상을 하기도 하였다. 허 교수는 평소 인문학과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허진희 교수
(원예생명공학전공)



《죽음이란 무엇인가》

허진희 교수가 추천한 책은 셸리 케이건의 「죽음이란 무엇인가」이다. 이 책은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셸리 케이건 교수가 교양 철학 수업으로 강의했던 'DEATH'를 새롭게 구성한 책으로 '죽음'의 본질과 '삶'의 의미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을 고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책의 전반부는 죽음의 본질에 대해 생각할 때 떠오르는 철학적인 질문들로 시작한다.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실체는 무엇인가?”, “영혼이란 게 정말로 존재하는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더 나아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죽음은 나쁜 것일까?”라는 질문과 함께, 독자에게 철학적 차원에서 죽음이 정말로 나쁜 것인지 생각하게끔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언젠가 내가 죽을 것이라는 깨달음이 삶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죽음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일깨워 준다. 끝으로 자살이라는 주제에 대해 케이건 교수는 독자의 예상과는 상반되는 결론을 제시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삶’이라는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묘미를 이 책은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죽음에 대해 두려워한다. 때문에 죽음이란 소재는 다소 무거운 소재일 수밖에 없다. 허 교수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과정은 단순히 죽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때문에 이 책의 주제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누구나 한번쯤은 해봤을 고민이고, 계속 해봐야 할 고민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특히 대학 시절은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가치관을 확립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이 책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동물실험과 관련해서도 이 책은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하여도 생각해볼 기회를 준다. 많은 농생대 학생들이 생명과학 분야를 연구하면서 동물실험을 직간접적으로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과연 동물실험이 바람직한 것일까?”, “인류를 위하여 동물의 생명을 잔혹하게 앗아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라는 고민을 한번쯤 해보는 것이 진정한 과학자로서의 자세라고 허 교수는 말하였다. 동시에 일견 당연한 듯 보이는 현상일지라도 끊임없이 ‘왜’,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그에 대한 해답을 구해나가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사물을 보는 다양한 시각과 깊이 있는 사고능력을 갖추 수 있을 것이라 조언하였다.

〈다음 호의 도서 추천 주인공은?〉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추천해 준 허진희 교수에게 다음 호의 주인공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가 추천한 주인공은 응용생물학전공에서 곤충생리학을 연구하고 있는 이광범 교수.

이광범 교수의 추천 도서는 다음 호에 공개!

농생대 학생기자단 제기 송대웅



아프리카 출신 존 제이슨 박사학위 대표로 수여식 참석

■ 우리 대학 존 제이슨(John Jasson) 학생이 제67회 학위수여식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대표로 수여받았다. 그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출신으로 다레살렘 대학(University of Dar es Saalam) 야생동물생태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2009년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으로 우리 대학 산림과학부에 박사과정으로 입학하였다. 그는 탄자니아 서부 말라가라시 습지에서 멸종위기종인 넓적부리황새, 불장식두루미의 수심과 인위적 교란에 대한 반응을 박사학위 주제로 연구하였으며, 현재는 다레살렘 대학에서 조교수로 임용되어 한국에서 습득한 지식을 전달하고, 축적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조류생태보전 연구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중앙일보 2013년 2월 23일 토요일 033면〉

백운산 학술림의 공원화는 안 된다 김남훈(강원대 산림환경과학대 학장)

학술림은 연구자·학생이 숲을 배우고 연구하기 위해 특별히 보호, 관리하는 숲이다. 이 중 1912년 대학 숲으로 지정된 전남 지리산과 백운산의 숲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이 숲의 일부는 1967년에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국립공원의 일부로 지정되었다. 공원이 된 이후 지리산 학술림은 학술적인 이용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최근 환경부는 지리산 국립공원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백운산 학술림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 한다. 백운산 학술림은 100년 넘는 세월에 걸쳐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내 유일의 학술용 숲이다. 산림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이자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관리 방법과 종(種)다양성,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되는 숲이다.

우리 국토의 64%인 637만 ha는 산림이다. 이 중 국립공원 지역은 약 5%인 31만 ha다. 학술용 숲은 국립공원의 10분의 1인 3만1,000 ha가 고작이다. 그중 절반이 백운산 학술림이다. 연구와 교육을 할 수 있는 숲다운 숲은 이곳이 유일하다. 숲에서 벌어지는 식물상의 변화는 한두 해 연구로 알아낼 수 없다. 수십 년간 자료를 수집하고 비교 분석해야만 그

줄기를 잡을 수 있다. 백운산 학술림이 학술 목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곳조차 국립공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도 학술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관리하고 있는 지역을 국립공원보다 더 자연보전의 가치가 높은 곳으로 분류한다. 학술적 목적으로 지정된 학술림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각국 정부에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서울대 백운산 학술림을 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철회되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지구의 급격한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데 산림과학분야의 연구가 중심이 되고 있고, 이를 위해 학술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남훈
(강원대 산림환경과학대 학장)

〈조선일보 2013년 3월 21일 목요일 A33면〉

100년 역사의 서울대 학술림, 더욱 발전시켜야 김의경(경상대 농업생명과학대 학장)

전남 광양과 구례에 위치한 백운산과 지리산은 100년 전 교육과 연구를 위한 숲으로 지정된 후 서울대 학술림으로 활용돼 왔다. 그런데 최근 서울대 법인화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대 법인화법은 서울대가 교육과 연구에 사용하고 있는 국유 재산을 서울대에 무상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는 이 학술림을 오랫동안 학술적 목적에 사용했으며 앞으로도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를 반대하는 주민이 있고,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양도를 막아야 한다는 움직임까지 생겼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국가다. 전 국토의 65%가 산이다. 과거에는 산이 농사도 못 짓게 하고 살기에도 불편하고 교통에 장애를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산이 있어서 아름답고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시절이 되었다. 우리는 이런 산을 계속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으로 지켜야 한다. 우리 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면 학술림은 존치되어야 한다. 일본도 대학이 법인화될 때 서울대의 2~3배나 되는 넓은 면적의 학술림을 전부 대학에 양도한 사례가 있다. 구례와 광양 학술림은 우리나라 전체 학술림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다른 학술림들은 규모가 매우 작다. 작은 학술림에서는 숲을 제대로 연구할 수 없다. 외부의 환경에 의해 영

향을 받는 곳에서는 숲 자체를 연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백운산과 지리산 학술림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유일한 학술림이다. 이곳은 온난화에 따른 식생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며 지난 100년간 학술림으로 사용되어 축적된 자료가 있는 유일한 곳이다. 학술림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술림이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자랑스러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서울대 학술림은 국립대라는 한계 때문에 주민이 만족할 만한 관리와 투자에 미흡했다. 산림녹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던 시절에는 학술림을 생계 수단으로 활용하던 주민과의 마찰도 있었다. 이제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 새로운 차원에서 학술림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각오와 방향을 밝혀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상생(相生)의 해법을 찾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서울대 학술림을 통해서 광양과 구례가 발전하는 계기를 맞기 바란다.



김의경
(경상대 농업생명과학대 학장)

〈조선일보 2013년 3월 20일 수요일 A12면〉

“자녀 키 80%, 부모가 물려준 것” 서울대 김희발 교수 연구팀

자녀의 키는 부모의 영향을 어느 정도나 받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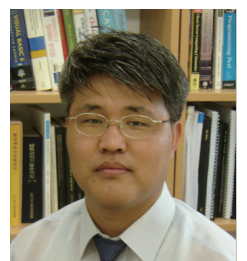
서울대 김희발 농생명공학부 교수는 19일 “자녀의 키는 80%가 부모로부터 유전적 요인, 나머지 20%는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고혈압은 30~40%, 비만은 40~60%, 당뇨는 20~30%가 유전적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지금까지 학계의 연구 결과”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경기도 안산·안성 지역 8842명의 유전자와 형질 정보를 통계 모델에 넣고 분석한 결과, 한국인 키에 미치는 유전적 영향(80%)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약 32%까지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학계에선 키에 미치는 유전적 영향(80%)의 많은 요소 가운데 5%

정도만 분석해내는 데 그쳤다. 김 교수팀이 27% 포인트를 추가로 분석한 것이다.

김 교수는 “기분 아니라 혈압·비만·당뇨 등 유전 요인 49개를 연구해 한국인의 질병 예방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팀의 연구는 최근 유전학 분야 세계적 학술지인 ‘프로스 제네틱스(PLoS Genetics)’ 온라인판에 실렸다.



김희발
(서울대 교수)



(주)비애피인터내셔널 서정식 대표, 발전기금 출연

(주)비애피인터내셔널 서정식 대표이사는 2월 28일 6년간 총 3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출연하고 협동과정 농림기상학 전공으로 기금을 위임했다.

(주)비애피인터내셔널은 각종 전자 계측기와 무인 기상 측정 시스템을 국내에 공급하는 회사로서 국내 전자 산업과 기상 분야에 있어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기금은 협동과정 농림기상학 전공의 우수 학생 발굴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농생대 기금출연 소식

기금 출연해 주신 분들

다음은 지난 2013. 01. 01. ~ 2013. 03.18.까지 우리 대학에 기부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명단입니다.

기금출연 (2013. 01. 01. ~ 2013. 03. 18.)		누적금액 : 21,200,000원	
10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주)추외유종	6,000,000	(주)에이티랩	3,000,000
이전제(임산가공 · 70)	5,000,000	실험누리과학관(대학원 · 82)	2,000,000
(주)추외유종	3,000,000	한성T&I	2,000,000
		박수철(산림자원 · 82)	200,000

[농생대 발전기금 출연안내]

농생대 교육연구재단 02-880-4510

농생대 홈페이지 : <http://cals.snu.ac.kr>

기금출연 (2000. 01. 01. ~ 2012. 12. 31.)					누적금액 : 5,166,000,000원	
(유)PPG코리아	광주MBC	김수민 (2003)환경재료과학	농생대 수목원	박창서 (61)농경제학		
(재)목문문화재단 한인규 (52)축산학	구자환 (81)농학	김영권 농학	농생명과학연구정보센터	박창호 (58)임학		
(재)유연정학회	권숙향 학부모	김영도 (68)축산학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박필선 (90)산림자원학		
(주)내츄로바이오텍	권정형 (60)농학	김영배 (85)축산학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박효근 (59)농학		
(주)생명의나무	권 철 (59)축산학	김영복 (72)농공학	농학과 동학회	반성환 (50)농경제학		
(주)서울신문사	김경옥 (68)농공학	김영성 (58)농학	농협중앙회	백남천 (81)농학		
(주)신농	김관수 (82)농경제학	김영성 (59)농경제학	농화학 동문회	백중현 (79)임산가공학		
(주)케이티엔에프	김광호 (68)식품공학	김영호 (73)농생물학	도원회 (61)농화학	부경생 (60)농생물학		
(주)하이스	김국형 (83)농생물학	김유용 (83)축산학	동학특수산업주	브이에프티		
53학번 동학회	김규옥 학부모	김유용, 윤원희	류관희 (63)농공학	서문원 (74)농학		
59학번 동학회(재미회원)	김근숙 농화학	김인식 (64)농학	류덕희 (주경동제약 대표이사	서민영 서울대직원		
69학번 동학회	김기선 (74)원예학	김장원 서울대직원	류순호 (55)농화학	서병문 (69)농공학		
69학번 여성동학회	김동암 (52)축산학	김정환 (75)농화학	무 명 (55)농공학	서울신문사		
70학번 동학회	김동윤 (48)농경제학	김중무 (59)농학	문성훈 (86)식품공학	서진호 식품생명공학 교수		
71학번 동학회	김동태 (62)농경제학	김진도 (81)농업교육	문지애 (77)식품공학	서학수 (65)농학		
81학번 원예동문동학회	김명중 (70)임산공학	김진우 (2006)산림과학부	문태화 (71)식품공학	성호정 학부모		
가나바이오텍(주)	김무열 (64)농공학	김진희 (59)축산학	바이오사이드테크	손정익 (75)농공학		
간접연구경비회계지원금	김민균 (82)농화학	김태수 (66)임학	박관희 (62)농화학	식물분자유전육종센터		
강미정 농가정학	김병동 (62)농학	김현중 (83)임산공학	박기주 (69)농업교육	신재익 (60)농화학		
강병철 (86)원예학	김상근 농업교육	김호철 (58)농경제학	박낙희 (83)농업교육	신젠타코리아(주)		
강예안 학부모	김상돈 (44)축산학	김희배 (86)동물자원과학	박시우 (65)농생물학	신한봉 (59)농학		
강창희 (66)농경제학	김석구 (55)임학	나승일 (81)농산업교육	박원규 (60)농공학	신현호 (79)원예학		
고 이은공 교수 유족 (72)농경제학	김성배 (85)농생물학	노희명 (76)농화학	박은우 (73)농생물학	신희순 (69)잠사학		
고종열 (87)축산학(박사)	김성수 (63)농업교육	농생대 기획실	박정현 (64)농업교육	심용섭 (70)농업교육		
고희중 (76)농학	김성일 (76)임학	농생대 동창회	박종국 (57)농화학	셀테크		

기금출연 (2000. 01. 01. ~ 2012. 12. 31.)

안동만 조경학 교수	이상기 (79)농화학	장학균학부모	(주)장수로	실험누리과학관 (82)
안동환 (86)농경제학	이상영 (65)잠사학	장휴동 (59)농경제학	(주)추비로	(주)넥스캡
안성규 (76)임학	이상우 (89)임학	재일동창생	(주)프로첼코리아	(주)숲에서
안원영 (55)임학	이상훈 (88)조경학	전창후 (83)원예학	(주)하이스	실험누리과학관 (82)
양태진 (85)원예학	이석하 (78)농학	정구민 (84)축산학	(주)한국에그로바이오	최고농업정책과정 14기
양호석 (57)농화학	이성우 지역정보 교수	정민섭 (59)임학	(주)한성T&I	유원예코사이언스(주)
엄기덕 (46)농화학	이수정 (65)농가정학	정윤환 (56)임학	(주)해냄테크	한성T&I
에스엠에이엔지니어링(주)	이승구 (66)농화학	정일영 (62)축산학	(주)현우그린	(주)에이티랩
에스윙테크(주)	이승환 (80)농생물학	정종훈 (77)농공학	(주)FC	(주)씨에스텍
연은실	이시혁 (80)농생물학	정주상 (77)임학	(주)SK텔레콤	실험누리과학관 (82)
염동해 (74)조경학	이은규 (77)농학	정진구 (65)농공학	직업과정CEO 과정	정진화
오기봉 (78)농화학	이완주 (63)잠사학	정현석 (63)농화학	진정우 학부모	실험누리과학관 (82)
오평환장학금 적립금	이용창 父 (99)생물자원공학부	정희석 (60)임학	차상석 연세대	김유용, 윤원희
온경용 (79)원예학	이용환 (79)농생물학	제연호 (86)천연섬유학	채수근 (54)잠사학	(주)녹색식물연구소
우리농장	이우신 (75)임학	조도현 서울대직원	채영암 (60)농학	실험누리과학관 (82)
우무일 (64)임학	이인모 (65)농경제학	조민성 父 (97)농경제학 사회학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이경국 (78)
우보명 (57)임학	이인복 지역시스템공학 교수	조성인 (77)농공학	최상호 (78)식품공학	고 강석권, 고 최하자 유족
우석상 (83)임학	이장희	조재영 (39)농학	최연홍 (56)잠사학	(주)프로첼코리아
원광엠에프디(주) (86)농화학	이재갑	조중수 (66)잠사학	최윤재 (73)축산학	실험누리과학관 (82)
원후식 (56)농생물학	이재진 (65)농학	(주)고추와요즘	최인규 (80)임산공학	(주)에이피디
유상열 (78)식품공학	이전제 (70)임산가공학	(주)내츄로바이오텍	최정우 父 (2000)생물자원공학부	실험누리과학관 (82)
유상철 (64)축산학	이정식 (69)원예학	(주)녹색식물연구소	최진용 (84)농공학	오평환장학금 적립금
유원예코사이언스(주)	이정훈 父 (2000) 식물생산과학부	(주)누보	최홍림 (71)농공학	한성T&I
유한김벌리	이종영 (70)임산가공학	(주)밀투밸런스	투플러스코스팜(주)	최고농업정책과정 15기
윤계섭 (53)임학	이준호 (74)농생물학	(주)바이오토마	패션푸드(주)	서울신문사
윤여창 (74)임학	이중용 (77)농공학	(주)베스트텍코리아	프로첼코리아	제11기 녹색지도자최고위과정
윤용인 (57)농가정학	이철영 한백과학 대표	(주)블루인바이오먼트엔텍	피타코이드(주)	실험누리과학관 (82)
윤원희 김유용 교수 부인	이철우 (61)농경제학	(주)비르앤마이크로	하중규 (75)축산학	익명 (71)
윤익건설	이준만 (73)임학	(주)비비씨엔에프	한국마사회	(재)목은문화재단
윤해정 (90)임산공학	이충환 (2009)동물생명공학	(주)삼우종합건축사무소	한국전파기지국(주)	(재)목은문화재단
윤희진 (62)축산학	이태호 (74)농경제학	(주)생명과학기술	한상울 (72)농업교육	(주)누보
이건호 (67)농경제학	이필우 (53)임학	(주)센소메트릭스	한재용 (80)축산학	실험누리과학관 (82)
이광희 (75)농학	이한강 (69)임학	(주)숲에서	한준호 (64)임학	에스엠에이엔지니어링(주)
이기훈 (91)천연섬유	이현수 (60)농화학	(주)신텍	현의승 (61)잠사학	(주)지이에프바이오
이내수 (58)농경제학	이형주 (66)농화학	(주)씨아피인텔리전스	현정오 (66)농생물학	제10기 녹색지도자최고위과정
이돈구 (65)임학	이 흥 (70)농화학	(주)아데나	현진호 (88)천연섬유학	실험누리과학관 (82)
이동근 (82)조경학	이희석 (57)농생물학	(주)에스씨아이	홍상욱 (83)원예학	김경욱
이동찬 (82)농공학	이희재 (78)원예학	(주)에스씨에프	홍인식 (79)원예학	(주)블루비에스
이두이 (66)농학	일본동문회	(주)에스이오	홍중일 (80)축산학	실험누리과학관 (82)
이득용 (52)농경제학	임경순 (54)축산학	(주)에이티랩	홍중혁 농경제학 석사 홍준표 조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이명훈 (69)농경제학	임승빈 조경학 교수	(주)에이피디	화인엔터프라이	안성규 (76)
이무하 (67)축산학	임용재 (67)농경제학	(주)에코엘리디라이트	환경지도자고위과정	(주)비비씨엔에프
이미경 (74)농화학	임용택 (54)농경제학	(주)에프엔피	황인규 (76)농생물학	서울신문사
이미순 (56)농학	임정목 동물생명공학 교수	(주)여러분의 천년초	CALSP	(주)숲에서
이병근 (67)농경제학	장우상 (63)잠사학	(주)오리엔탈드림	KBS한국방송	
이병목 (64)농생물학	장진성 (78)임학	(주)유원테크	MBC문화방송	
이병일 (57)원예학	장창순 (53)농경제학	(주)이레엘	RNL생명과학(주)	
이삼희 (66)농화학	장태평	(주)이지코스	(주)오리엔탈드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People 농생대사람들

[동문동정]

- ▶ 권영길(잠사61) 동문이 3월 2일자로 창원대학교 초빙교수로 임용되었다.
- ▶ 정기호(농학74) 동문은 2월 22일 농림물류 신입 대표로 취임되었다.
- ▶ 이동필(농경제석사79) 동문은 3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 ▶ 여인홍(농학76) 동문은 3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임명되었다.
- ▶ 정황근(농학79) 동문은 3월 12일 농림축산식품 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

[교수동정]

▶ **서진호 교수**(농생명공학부)는 2012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Bio/Medical Science & Application 이라는 주제로 인도 New Delhi에서 개최된 제4차 한·인도 과학기술 공동워크숍에 참가하여 "Overview of Bioindustry In Korea"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하였다.



▶ **노재선 교수**(농경제사화학부)는 1월 14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소외되는 약초농가, 살 길은 무엇인가'에 참석하였다. 토론회에서 노 교수는 "약용작물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해야 국내 약용작물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윤여창 교수**(기후변화사업단장)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정된 우리나라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추어 우리나라 산림탄소상쇄제도 정착과 관련한 국제동향 파악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3월 22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림탄소상쇄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이란 주제로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하였다. 일본과 중국의 전문가와 학자들이 참가하여 한·중·일간의 산림탄소상쇄제도에 관한 연구 성과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 **이석하 교수**(식물생산과학부)는 제3차 식물유전자원 유전체학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장으로써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제주도국제컨벤션센터에서 "A Gateway to the New Era of Global Food Security"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전 세계의 식물유전자원 유전체학자들이 참가하는 농업학 축제의 장으로써 저명한 전문가들의 초청강연, 전시회, 논문발표로 구성되어 있다.



[동창회 소식]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회장 정운환)는 1월 8일(화)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에서 2013년 신년교례회를 개최하였다. 정운환 동창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도 동문들의 건강과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소원하였고 이학래 학장은 많은 장학금조성에 기여한 동창회와 상록문화재단에 대한 감사의 말과 동문들에 대한 건강과 만복을 기원하였다. 이어서 신년교례회 주관학번인 61, 62학번의 장학증서 전달식이 있었다.

이번 신년교례회에는 강다은(산업인력 03)을 비롯한 8명의 농생대 봉사동아리 'CALSIAN' 학생들이 참석하여 행사 진행을 도와주었을 뿐 아니라 선배들에게 세배를 드리는 등 신년교례회 행사를 더욱 빛나게 해주었다. 이어서 원로 동문들이 축하 시루떡 커팅을 하였고, 모교 축산학과를 1946년에 입학하신 송환창 선배님이 새해 소망을 담은 건배제의를 하였다. 참석한 동문들은 준비된 식사를 하면서 답소를 나누었다. 이날 14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모교 및 동창회의 발전과 동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 소식을 통해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거나 구독을 원하시면 농생대 기획실(대외협력·홍보팀)
(T. 880-4538, calsweb@snu.ac.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151-921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홈페이지 <http://cals.snu.ac.kr>

※ 지역번호 (02)

학장실 T.880-4501~2 F.873-7709
교무행정실 T.880-4505-7 F.873-2009
학생행정실 T.880-4531/4508 F.873-5597
연구행정실 T.880-4910 F.873-7729
기획실 T.880-4510/4538 F.873-5579
사무행정실 T.880-4512~5 F.873-7709
입학진로정보실 T.880-4667 F.880-4668
평창그린바이오 T.880-4537/2897 F.873-0125

식물생산과학부 T.880-4540
- 작물생명과학전공 T.880-4550 F.877-4550
- 원예생명과학전공 T.880-4578 F.873-2056
- 산업인력개발전공 T.880-4830 F.873-2042

산림과학부 T.880-4750
- 산림환경과학전공 T.880-4777 F.873-3560
- 환경재료과학전공 T.880-4780 F.873-2318

농생명공학부 T.880-4901
+ 식품·동물생명공학부 T.880-4869
- 식품생명과학전공 T.880-4850 F.873-5095
- 동물생명과학전공 T.880-4800 F.873-2271
+ 응용생물화학부 T.880-4640
- 응용생명화학전공 T.880-4650 F.873-3112
- 식물미생물학전공 T.880-4690 F.873-2317
- 곤충학전공 T.880-4700 F.873-2319
+ 바이오모듈레이션전공
T.880-4907 F.877-4906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T.880-4670
- 조경학전공 T.880-4870 F.873-5113
- 지역시스템공학전공 T.880-4580 F.873-2087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T.880-4590
-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T.880-4600 F.873-2049
- 바이오소재공학전공 T.880-4620 F.873-2285

농경제사화학부 T.880-4710
- 농업·자원경제학전공 T.880-4711 F.873-3565
- 지역정보전공 T.880-4740 F.873-5080

농산업교육과 T.880-4830 F.873-2042

협동과정 농업생물공학 T.880-4901 F.873-2039

협동과정 농림기상학 T.871-0211 F.871-0230

농장 T.(031)293-0310~2 F.(031)295-4216
학술팀 T.880-4526 F.873-2031
실험목장 T.(031)293-0313 F.(031)293-0314
수목원 T.(031)473-0071 F.(031)473-0072
농학도서관 T.880-4773~5 F.884-0182
농업생명과학연구원 T.880-4910~4 F.873-7729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T.880-4845 F.888-4847
국가농림기상센터 T.871-0234 F.871-0230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 T.880-4920~1 F.873-5260
식물유전체학연구소 T.880-4930 F.873-5410
곰팡이병원성연구센터 T.880-4950 F.873-4950
식물안전성 및 독성연구센터
T.880-4919 F.883-4919
채소육종연구센터 T.880-4945 F.873-5410
세균의사소통학의연구단 T.880-4686 F.873-2317
농생명공학사업단 T.880-4901~2 F.873-2039
식물분자육종사업단 T.880-4978~9 F.875-4978
농업생명과학정보원 T.880-4523 F.882-7670
교육연수원 T.880-4844 F.872-8995
최고농업정책과정 T.880-4730 F.886-4868
창업보육센터 T.(031)293-0324 F.(031)294-8527
식물병원 T.880-4697 F.880-4698
농업공학실 T.880-4619
식품공학 T.880-4824